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복지 데스크

최근 5년간 장애인 채용 ‘0명’ 대기업 8곳

국회 환경노동위 신창현 의원,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 현황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미고용 부담금 1인당 월 157만원...“차등 적용 등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장애인 노동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300인 이상 기업이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 부과 등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노동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기준 8곳으로 이들의 매출

액 규모만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심지어 주무부처인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3.2%로, 한국폴리텍(2.4%), 노사발전재단(2.4%), 한국잡월드(1.7%)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이상 장애인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300인 이상 사업장도 20개로 집계됐다. 이들이 지난해 의무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는 298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은 지난해 기준 1인당 월 157만원

수준으로, 20개 기업이 남부한 부담금은 총 56억3000만원에 그쳤다.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인 사업장 중 장애인 고용이 한 명도 없었던 사업체는 지난해 196개로, 170개였던 2014년보다 오히려 26개 늘었다. 신 의원은 “최근 장애인 고용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대기업으로는 프라다, 스와르브스키, 코치, 페라가모 등 외국계 명품 제작업체가 다수 포진해 있었다”며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행수준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제일고, 장애인기능경기대회 2년 연속 입상

학생 데이터 입력 부문 은상

광주제일고등 학교(교장 이승오) 김민재(3년) 학생이 제 36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광주광역시 대표로 참가해 데이터입력(발달) 종목에서 상금 100만원과 함께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으로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35회 울산광역시 개최에 이어 올해는 전라북도 전주와 익산에서 지난 9월 24일~27일까지 4일간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정규 19개(양복, 전자출판, 귀속속 공예 등) 직종과 시범 14개(바리스타, 제과제빵, 인테리어 디자인 등) 직종, 레저 및 생활기능 9개(봉제, 기기조립, 도자기 등) 직종으로 총 42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19명이 참가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김민재 학생은 “박영훈 선배가 지난해 대회에 출전하여 동상 받은 것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 대회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노력하여 은상을 수상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여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태욱 지도교사는 “작년에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같은 데이터입력 직종으로 참가하여 동상을 수상하였는데 올해는 은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이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좋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고 전했다.

조인호 기자

영광군 소속 박주영씨 ‘제36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수상

시각디자인 부문 은상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 소속 출전자 박주영씨가 지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제36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시각디자인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제36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는 지난 9월 24일~27일 4일간 전주 화산체육관, 전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전북 장애인 복지관, 한국폴리텍대학 익산 캠퍼스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이번 대회는

총42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 419명이 참가했다. 한편 이번 대회 수상자에게는 국제 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영광읍에서 디자인회사 “디코”를 설립하여 운영중인 박주영씨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벌써 네 번째 도전인데, 좋은 성적을 거둬 너무 행복하다”며 “끝까지 믿고 응원해준 지회 회원들과 서희권국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황후선 지회장은 “그동안 연마한 기량을 맘껏 발휘해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개인뿐 아니라 전라남도 및 영광군의 위상을 높였다”면서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담양 고서면, 장애인 세대 청소 봉사활동

협의체 및 증암봉사회 회원 20여 명 주거환경개선 호응

담양군 고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광훈)는 최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고자 협의체 및 증암봉사회 회원 20여 명이 함께 고서면 원강리에 거주하는 장애인 세대를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해당 세대는 청소가 어려워 쓰레기를 방치하고 물건정리를 하지 못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상태였고 이에 협의체는 오래전부터 가득 차 있던 쓰레기, 고물, 폐가전 등을 바깥으로 꺼내고 청소해 쾌적한 환경

을 만들었다. 강성령 고서면장은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회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러한 가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협의체는 한 독지가의 후원으로 해당 세대에 소독, 도배, 장판, 싱크대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Gwangsan